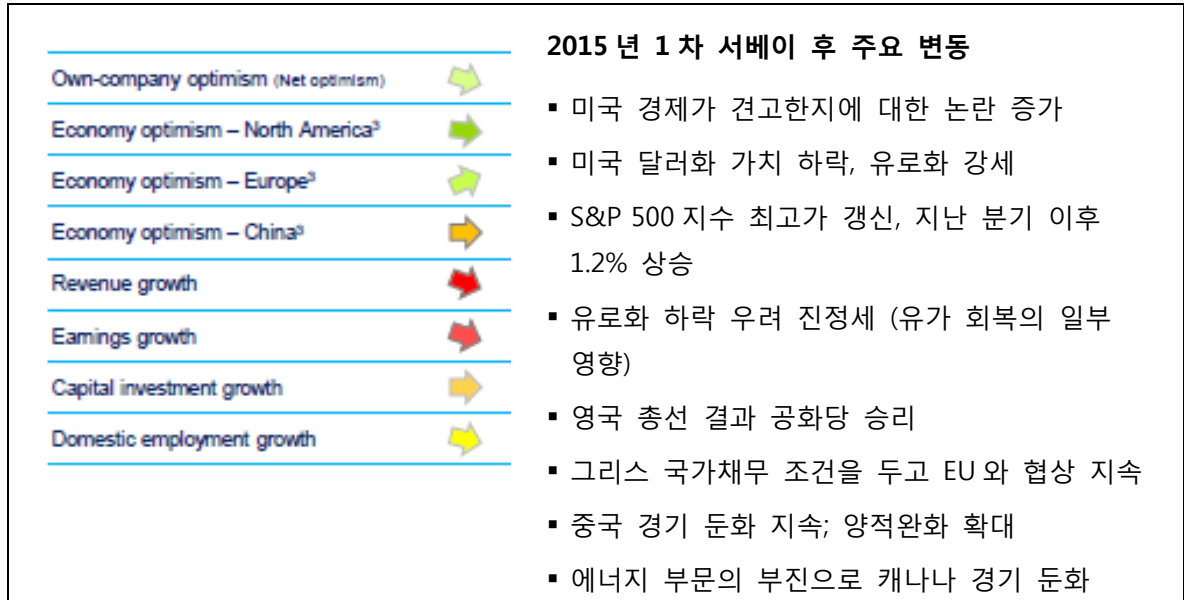


CFO Signals¹ 2Q 15: 성장 전망 하락

Summary: 서베이 결과 CFO의 경기상황에 대한 인식과 기대수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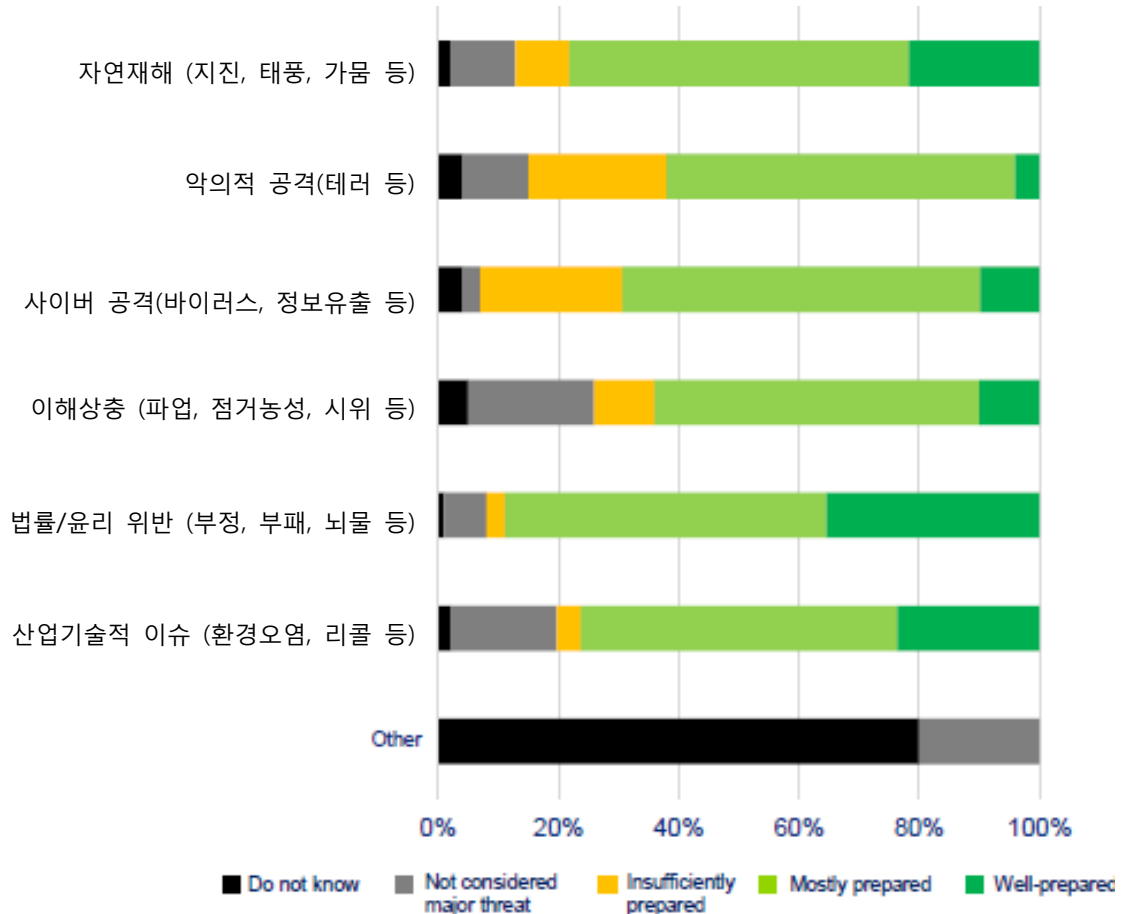
- 글로벌 경제의 건전성 여부, 지역적 경기변동성의 지속, 미국 달러화 강세 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CFO들의 낙관적인 전망이 우세
- 서베이 이후 경제 상황은 개선 중²
 - 그리스 상황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완만한 성장세, 중국은 안정적
 - 유가 반등, 미국 달러화 안정세, S&P 500 지수 최고가 갱신
- 여전히 변동성이 존재하며, 무엇보다도 미국 경기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호조인지에 대한 논란.
 - 서베이에 참여자들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며, 그 결과로 성장에 대한 기대치는 이 서베이를 진행한 지난 5년래 가장 낮은 수준임

¹ CFO Signals™: Deloitte의 CFO Program에서 분기별로 북미의 CFO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 조사. 2015년 두 번째 서베이로 총 101명의 CFO가 설문조사에 참여 (미국회사 72%, 캐나다 14%, 멕시코 14% / 상장법인 71% / 매출액 USD 1 bil. 이상 기업 84%)

² 보고서 발행 시점 이후로 그리스나 중국의 상황은 일부 변화가 있음

- 매출과 이익 성장에 대한 기대치는 하락하였으나 북미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은 지난 분기 서베이보다 소폭 하락에 그치는 등 여전히 밝은 편; 유럽에 대한 평가는 지난 조사결과에 비해 크게 개선;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은 미온적

Special Topic 1: 위기관리 역량 (How prepared are companies for potential crises?):



1) 사이버 공격: 은 가장 큰 위협이나 준비가 부족한 영역

- 97%가 중요한 위협으로 인식하는 반면 잘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은 10%에 불과
- 대응이 미흡하다는 응답은 25%이며, 정보통신기업(50%)과 금융기관(30%)에서 두드러짐

2) 법규 위반이나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는 중요한 위협(92%)이나 잘 대응하고 있다(90%)는 응답이 대부분

3) 악의적 공격(테러 등)도 주요 위협요인이나 대응이 부족한 영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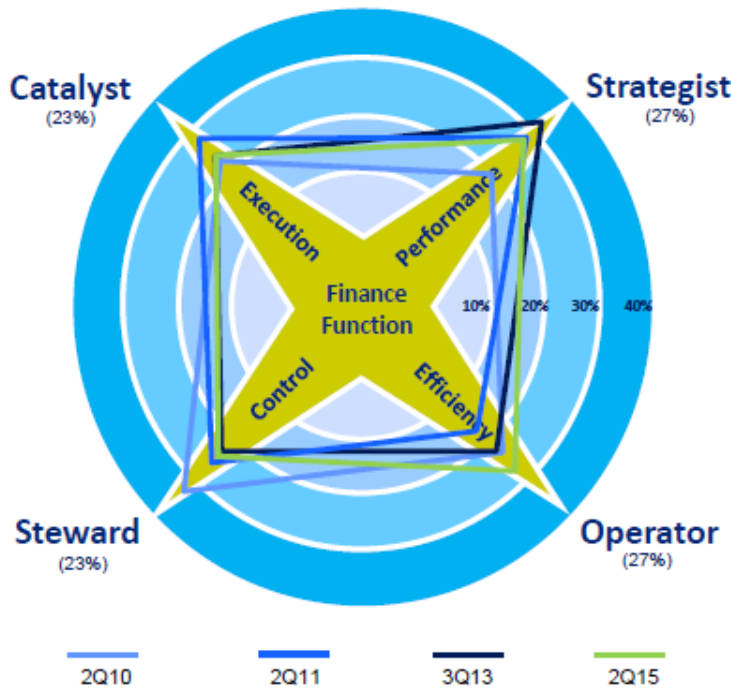
4)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9%만 준비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으며, 도소매기업, 에너지/자원기업 중심으로 우려가 높음

- 5) 이해상충(파업, 점거농성, 시위 등)은 제조 및 도소매기업의 중요한 이슈이며 각각 20%, 13%가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
- 6) 산업/기술 이슈(환경오염, 리콜 등): 제조업과 에너지/자원기업의 주요 이슈이나 90%가 '상당 수준 대응'하고 있다는 평가

Special Topic 2: CFO의 역할 (What is your division of time between CFO roles?)

- 딜로이트에서는 CFO의 역할을 전략가(Strategist), 촉매자(Catalyst), 관리자(Steward), 운영자(Operator) 등 4가지로 구분
- '전략가' 역할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이번 서베이에서는 '운영자'의 역할이 다시 증가

What is your division of time between CFO roles?
Percent of time CFOs report spending in each role (n=100)



- **운영자(Operator):** 재무조직의 효율성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역할; 재무조직의 운영모델 정의와 개선, 역량 관리와 아웃소싱 이슈 관리 등
- **관리자(Steward):** 회계, 내부통제, 리스크 관리, 자산보호 등의 감독역할; GAAP 이나 내부통제 요구사항 준수, 정보의 신뢰성 제고, 내부통제 합리화 등
- **전략가(Strategist):** 전략 추진 주체로서의 역할; 회사의 미래 모습 정의, 혁신과 성장에 대해 재무적 시각을 제시, 리스크 인지도, 의사결정 및 성과 관리 방안 개선, 자본시장에서의 기대치를 경영의 필수사항으로 전환
- **촉매자(Catalyst):** 변화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; 가치 중심의 마인드 수립, 전략과 관련된 집단의 융합, 기타 의사결정자의 지원, 책임성 확보

[End of Document]